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Column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도시, 그리고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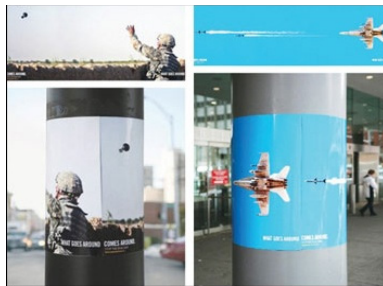
Interview

연세대 국학연구원장 백영서 교수와의 만남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IDI 소식



인발연-기타큐슈시립대학 연구교류 제5회 공동 연구발표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제5회 공동...

Zoom 人



영원한 청년 시인 기형도
유쾌한 성격에 사람을 좋아하여 주변 지인들과 아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시...

Zoom INcheon



관계와 욕망의 교차로 _인천상륙작전기념관
California St.를 아시나요? 경기도 양주시
한북정맥 흥복산 ...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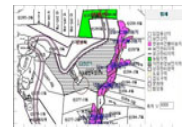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도시_오кина와 나하시
오кина와의 매력은 겨울에도 따뜻하며 풍경이 좋고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라...

IDI 연구



인천 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안보이슈로부...

인천지표



서해5도 관광현황
서해5도에는 대규모 모래해안, 해식애와 같은 중요한 지형경관에서부터 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도시, 그리고 인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도시, 그리고 인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와 쟁점

1953년 7월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의 건설은 잠재적 또는 명시적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올림픽 직후인 1988년 10월 한국은 노태우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을 통해 처음으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공식 의제화했다. 1991년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더불어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금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의 해체가 가시화되고 남북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의제화했다. 즉 탈냉전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게끔 한 계기였다.

“탈냉전 후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재편과 연계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제안한 후 한반도문제가 미중관계가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2차 북핵위기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부터 남북미중,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으로 확대되었다.”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제안한 후 한반도문제가 미중관계가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다자회의’였던 4자회담은, 1999년 8월 6차 본회담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2차 북핵위기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남북미중,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으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합의되었다. 9·19공동성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의 대강이 담긴 문건이다.”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합의되었다. 9·19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 6자의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의 증진 등이었다. 9·19공동성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의 대강이 담긴 문건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가 의제로 부상하면서 북미갈등이 발생하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다시금 평화체제 논의는 실종되었다.

남북한은 2007년 8월 제2차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인 ‘10·4선언’의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겠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다. 둘째, 10·4선언에서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 및 평화체제에 이르는 두 경로에 합의했다. 하나는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위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그 사례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국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었다. 즉, 10·4 선언에서는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단계를 설정했다. 그러나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당사자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쟁점이었다. 셋째,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보수, 경제특구의 거선과 해주항의 확충, 조서현령과 간오 기노점 현령의 구체적 내용이

2. 평화체제와 평화도시

한국어 평화체제는 영어로 peace regime 또는 peace system으로 번역될 수 있다. 평화는 하나의 번역어가 존재하지만, 체제에는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념, 평화와 체제의 정의를 둘러싸고도 남북한은 물론 남한 내부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경쟁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정의한다. 즉 남북한 모두 '소극적'(negative) 평화의 개념을 수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한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세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즉 '적극적'(positive) 평화의 개념을 선호한다.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를 의제화할 때 그것이 peace regime이든 peace system이든, 평화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반면, regime과 system은 국제관계이론의 맥락에서 상이한 개념이다. regime은, 행위자들 사이의 규칙, 기대, 처방의 틀을 지칭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이슈영역(issue area) 안에서 작동한다. 반면, system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구조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두 개념 모두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적 제약을 담고 있지만, system은 regime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peace system은 peace regime을 구성요소로 하면서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인식과 행동을 담고 있다. 민주화·탈냉전 이후 등장한 남북한의 기능적 협력은 peace system을 구성하는 요소다. 물론, 기능주의적 접근이 자동적으로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침투확산(spill-over)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평화체제가 반드시 지속가능한(sustainable) 평화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전체제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효한 장치일 수 있다. 정전체제의 폐기가 한반도를 새로운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peace regime은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을 포함한 평화의 제도화는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전체제를, peace regime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업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기능주의적 협력을 포함한 peac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신뢰구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우리는 9·19공동성명에 사용된 peace regime을 좁은 의미의 평화체제로, peace system을 넓은 의미의 평화체제로 정의할 수도 있다.

10·4공동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은 기능적 협력과 정치군사적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전협정에 서해상의 남북한 경계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분단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북방한계선의 재정의의 둘러싼 논의를 경제협력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서해5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평화체제와 직접 연관된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에서 도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경제·사회·문화교류와 같은 기능적 협력으로 한정되곤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참여가 필수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정치군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기도 했다.

“2007년 10·4공동선언 결과, 서해5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평화체제와 직접 연관된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의제화된 후, 구체적 실행방안과 비교사례들이 검토되었다. 남북한의 분단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선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서 서해에 면의 개념을 도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이 제안은, 백령-대청권역은 해양평화공원으로, 연평권역은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으로, 강화-한강하구권역은 역사문화와 환경보존구역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무인도인 미령리도 근해를 시범수역으로 하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역의 시아첸 협곡, 이라크와 쿠웨이트 접경지역의 평화공원,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 일본의 오키나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지역의 홍해해양평화공원 등이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다.

특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만들어낸 홍해해양평화공원은, 전쟁을 경험할 정도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두 국가가 전장이었던 아카바만 바다를 공유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랏(Eilat)과 요르단의 아카바(Aqaba) 두 도시의 협력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인권형식이라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업적사업이었다. 1990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체결한 아카바-아일랏 협정(Agreement on Special Arrangements for Aqaba and Eilat)에는, 해양 생태계의 보호, 지역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평화 정착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후 이를 관리하는 국제적 조직이 결성되어,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은 분쟁수역을 환경과 경제와 평화와 함께 가는 협력수역으로 만든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해양평화공원이 1994년 체결된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이 참여한 협상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 평화조약은, 평화구축, 일반원칙, 국경, 안보, 외교관계, 수로, 경제관계, 난민, 역사적 종교적 장소, 문화·과학교류, 상호 이해, 범죄와 마약, 수송, 항해, 민간항공, 여행, 환경, 에너지, 보건, 리프트 계곡개발, 홍해 등등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평화협정의 기초하여 홍해해양평화공원계획은 해상 경계선을 확정한 협정과 함께 입안되었다. 즉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체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이 작동할 때, 지방정부들의 평화와 경제를 위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이 합의되기 전까지 정치군사적 갈등의 현장인 접경지역에 위치한 인천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접경지역에 관한 논의의 원칙은 평화공존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협력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인천이란 도시의 정체성을 평화지향적, 공존지향적으로 바꾸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미래에 와야 하는 정체성을 미리 만드는 작업이다. 평화도시(peace city) 인천을 상상해 보자.

3.

평화도시 인천

평화국가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체라면, 평화도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갈등해결과 화해협력, 다문화적 이해와 인권의 증진, 폭력의 제거를 추구하는 도시다. 1986년 국제평화의 해에 유엔은 ‘평화메신저 도시’(Peace Messenger Cities)를 지정한 바 있다. 1988년 프랑스의 베르덩(Verdun)에 모인 다양한 도시의 대표들은, 시민 사이의 이해와 연대의 증진, 평화·관용·상호존중의 정신의 확산, 인류의 존엄을 위해 전쟁·굶주림·자연재해와의 투쟁, 핵군축의 필요성 등을 평화도시현장에 담고자 했다. 1996년에는 평화메신저 도시의 국제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핵참화를 겪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들의 주도로 결성된 ‘평화를 위한 시장들’(Mayors for Peace)이라는 조직도 핵군축과 핵폐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례처럼 접경지역의 도시 인천이 비핵지대화를 선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과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례는 뉴질랜드 도시들의 경험이다.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Wellington)은, 1982년 4월 시의회의 결정으로 비핵지대화(Nuclear-Weapon Free Zone)를 선포했다. 이후 뉴질랜드의 도시들은 비핵지대화 물결에 동참했고, 1984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비핵지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987년 뉴질랜드 전체를 비핵지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3년 웰링턴은 스스로를 ‘평화수도’(Peace Capital)로 선포하기도 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과 연계하는 시민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 위원회와 핵군축을 위한 의원네트워크(Parliamentary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 PNND)의 활동이 대표적 사례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도 제안된 바 있다. 몽골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비핵지대를 선포한 국가다. 접경지역의 도시 인천이 비핵지대화를 선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과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평화도시 인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천시 예산의 일정액을 평화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시정부 내에 갈등해결과 화해협력, 다문화주의의 실천, 탈북자지원 등을 포괄하는 평화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평화도시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한중해안을 연결하는 평화도시연합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 넷째,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이다. 다섯째, 시민참여형 평화도시 건설을 위한 협치(governance)의 제도화는 평화도시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평화체제에 이르는 과정을 둘러싼 남북한 및 관련 국가들의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도시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53년 7월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의 건설은 잠재적 또는 명시적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올림픽 직후인 1988년 10월 한국은 노태우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을 통해 처음으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공식 의제화했다.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현장' 네트워크: 진먼·오끼나와·서해5도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현장' 네트워크 : 진먼 · 오끼나와 · 서해5도

금년에 4주년을 맞이하는 10.4 정상선언 기념학술행사에서 인천 서해5도서를 대만의 진먼, 일본의 오끼나와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주장한 연세대 국학연구원 원장 백영서 교수를 만나 대담을 나눴다.



연세대 국학연구원장 백영서 교수

Q 1999년 이래 잦은 서해교전에 이어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불안정한 서해에 입지한 인천에서 평화도시를 기원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평화도시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 주십시오.

인천은 한국역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세력간의 국제전쟁과 남북한간의 전쟁이 잇따라 벌어진 전장(戰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도시'로 불리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절실히 평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 큰 곳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병인양요(1866),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5), 한국전쟁기의 인천상륙작전(1950) 그리고 1999년 이래 5 차례 걸친 서해교전이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아직 우리 기억에 선명한 작년의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 주변에서의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은 시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과 그로부터 210km 떨어진 백령도 등 서해 5도가 전쟁에 휘말린 것은 그만큼 이곳이 지정학적인 요충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평화롭게 개방만 되면 교류의 거점이 될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은 해방 이후 남북한이 분단됨으로써 그전까지의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서 누렸던 활기를 잃고 남북 갈등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만 다행히 1992년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면서 중국과의 교역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되찾아 발전의 도약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대북교역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 기대가 좌절되었습니다.

Q 향후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변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해평화겠지요. 이를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은 서해를 끼고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 교차로의 중심에 위치하는 동시에 남북으로 북한을 넘어 러시아와 일본까지 연결하는 국제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인천을 넘어 남북한 및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로 시야를 확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길은 이미 4년 전 2007년 남북한 정상에 발표한 「10·4정상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해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현안인 북방한계선(NNL: Northern Limit Line)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이곳 인천에서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진 주체는 인천시와 시민단체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시정부가 긴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서해 5도 지역에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해양평화공원, 평화의 섬 등을 만들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자 세계평화의 구역으로 조성할 것을 내세우자,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호응하여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종교, 환경, 통일 등 지역 각 분야 3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인천을 평화도시로 만들자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연평도 포격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인천이 나서 풀어야 한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화도시 인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10만 인천시민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세계평화축제 개최, 해안철책제거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인천 앞바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추구하고, 인천시에는 서해평화해양공원 조성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인천 시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을 실현하는 평화도시로서 인천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교전지역으로 이미지화된 서해 5도의 자연환경 및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 국제화하고, 앞으로 북측 일부 지역에까지 확장하여 공동평화지대로 삼는 방향도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하듯이 이런 구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제대로 추진되기 힘듭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개성공단이 직접 소통하는 경제 발전안을 제시하는 등 대북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인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제연계에 유리한 항만과 공항이 있는 기반시설과 지리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인천이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핵심현장'이 되겠다는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평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의 일부인 서해 5도가 생활권인 그곳 주민,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배려가 평화도시 구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점이 한국의 또 다른 평화도시인 제주도와 다른, 인천이 가진 평화도시로서의 특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분단체제 극복의 '핵심현장'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덧붙여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를 시아에 넣은 평화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셨지요.

앞서 말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은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특히 냉전의 최전선에서 그 모순을 집약적으로 겪어온 공통된 역사를 지닌 '핵심현장'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이 연대사업은 평화도시 인천의 정당성을 널리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의 역할이 아시아인에게 보편적 호소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2014년 아시안 게임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Q 그러면 진먼, 오키나와와의 연대가 동아시아 핵심현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어떤 공통성이 있습니까?

진먼, 오키나와 그리고 인천 서해5도 세 곳은 동아시아 냉전의 최전선에서 그 구조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겪어 왔다는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세 곳 모두 육지(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국경이 겹치는 경계의 섬으로서 세계차원의 패권적 지배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작동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패권적 질서의 군사기지를 제공하여 지탱해온 지배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장소로 전환할 때 비로소 이 지역 평화의 실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현장'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핵심현장'으로서의 의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조적 위치로 인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가 곧바로 그 현장성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주체적인 역량이 갖춰질 때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오키나와와 진먼을 몇 차례 방문하고서 이 두 곳과 한반도 문제가 서로 연동되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경이라는 배타적 선(線, line)을 둘러싼 대립을 면(面, zone)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경·영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오키나와와 대만의 일부 도시가 합의한 관광경제권과 한반도 서해의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선을 면으로 만드는 발상 전환의 공통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곳 모두 평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지방 차원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동아시아에서 정치권력이 다양한 사회세력과 어떻게 협력하여 국가를 경영하는가 하는 새로운 가버넌스(즉 협치형 가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진먼, 오키나와 그리고 인천이 동아시아의 일부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중심이었던 중국, 일본, 미국에 차례로 매개되어 연동하는 동아시아의 주변적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위치 지어진 공통성을 지닌 곳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의 차이에 상응하는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되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아시아적 시야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현장'을 엮는 네트워크가 절실합니다.

금문도의 역사

지금은 행정적으로 대만(중화민국)에 속하지만, 지리상으로는 중국 대륙의 샤먼(廈門)에 더 가깝다. 타이베이에서는 비행기로 한 시간 채 못 걸리나 샤먼에서는 배로 30분 밖에 안 걸린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초국적(超國)의 지역문화의 요충이었다. 청조 때부터 동남아 등지로의 화교의 배출지이자

중계지였고, 복건(閩南) 지역 문화의 핵심고리였다. 진먼도가 대만의 중화민국 영토로 들어간 것은 1950년대 들어와서이다. 청조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해 대만을 일본에 넘겨줬을 때도 진먼도는 여전히 청조에 속했고, 이어서 청조를 타도한 중화민국정부에 관할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경선을 획정하는 처절한 전투가 1949년 이후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벌어졌고 그 결과로 진먼도는 사면 지역에서 단절된 채 대만을 장악한 국민당의 중화민국 영토로 귀속되어버린 것이다.

1949년 내전에서 패퇴하여 대만에 들어온 국민당정부와 대륙을 장악한 공산당정권은 서로 진먼도를 차지하기 위해 1949년부터 치열하게 싸웠다. 공산당정부는 사면을 장악한 뒤 바로 코앞의 진먼을 점령하고 이어서 대만으로 진출하고자 했고, 국민당정부는 이를 막고자 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진먼도는 단순히 국공의 대결장을 넘어 미국과 중국 간 냉전 갈등의 첨예한 전략적 요충이 되었다.

진먼도를 둘러싼 양측의 잇따른 전투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것이 바로 1958년 8월 23일에 개시된 전투이다. 그날 시작되어 전투가 중지된 10월 5일까지 하루 걸러 육해공군이 동원된 포격으로 금문도에 가해진 포탄은 47만 발이라고 한다. 그 후로도 양측의 포격은 간간히 벌어졌는데 포격이 멈춘 것은 1978년 12월 15일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국교를 맺기 전후해서이다. 이후 1992년 11월 7일 진먼도가 전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진먼도 주민들은 장장 43년을 계엄 하에서 살아야 했다. 대만 본섬이 계엄에서 해제된 1987년보다 5년이나 뒤늦은 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별도의 화폐를 사용했고, 대만 본섬과의 왕래도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야 했다. 지금은 군사기지가 대폭 철폐되었지만 자원이 적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그곳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지(戰地)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끼나와 '처분'의 역사

서울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일본의 최남단, 토오쿄오보다 타이베이에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 오끼나와. 전통시대부터 줄곧 국가간 경계가 불명확한 또는 애매한 위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독특한 곳이다.

독립국인 류큐(琉球)왕국은 1609년의 사쓰마번(薩摩藩)의 침공을 받은 이후 막번제(幕藩制)국가 속의 '이국(異國)'으로서 존재했다. 화이질서 아래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쿠가와 막부가 전략적으로 류큐의 왕국으로서의 존립을 허용한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끼나와 역사는 몇 차례 외부 세력에 의한 점령지배가 복합적 중압으로 작동하는 초시대적 문맥 속에서 성립되었다. 바로 이 점은 일련의 연속된 '처분'의 역사로 설명된다. 처분이란 표현은, 오끼나와 주민의 운명을 결정지는 중요 사태가 모두 외부 권력기구에 의해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졌다는 역사적 맥락의 연속성을 부각시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즉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중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을 유지한 류큐왕국이 지배하던 오끼나와가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복속당해 하나의 현으로 재편된 것은 1879년이다. 그것이 이른바 제1의 류큐처분이다. 그 후 제2의 류큐처분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일본 영토이나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미국 법이 시행되는 미군 통치(이른바 '시정권')가 1952년(실제 지배는 1945년)부터 본격화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제3의 류큐처분이라는 것은 1972년 오끼나와가 본토로 복귀된 것을 말한다. 작년 5월 28일에 미일 두 정부가 오끼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오끼나와현 안으로 이전하겠다고 공동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측은 이번 조치를 '제4의 류큐처분'이라고 부르고 있다.

■ 대담/기록 : 강 승 호(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금년에 4주년을 맞이하는 10.4 정상선언 기념 학술행사에서 인천 서해5도서를 대만의 진먼, 일본의 오끼나와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주장한 연세대 국학연구원 원장 백영서 교수를 만나 인터뷰 하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발연-기타큐슈시립대학 연구교류 제5회 공동연구발표회 개최

■ 2011 인발연-기타큐슈시립대학 연구교류 제5회 공동연구발표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제5회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田中祥司(Shoji TANAKA) 기타큐슈경제연구소 대표 등 관련연구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지원·이권형 연구위원이 인천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바이오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기타큐슈시립대학에서는 다나카카타오카 교수가 기타큐슈 지역경제에 대해 발표를 가졌다.

한편, 우리 연구원과 기타큐슈시립대학은 지난 2006년 연구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연구사례를 취합, 매년 윤번제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책 연구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의 심화를 위해 양 기관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며, 해외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인천광역시 시민중심 대중교통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민중심 대중교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 인천교통공사(사장 박규홍)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인천광역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인천광역시는 도시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등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간 환승무료(할인) 요금제도 및 버스준공영제 도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개선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간 연계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도시철도와 버스가 어우러진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추진방안들이 모색되었다.



■ "강화·옹진·연천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



우리 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1일,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를 열고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 3개 군(郡)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2층에서 개최된 공동토론회에서는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수도권규제와 저발전지역', 서종국 인천대 교수가 '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규제가 이들 지역에 끼친 악영향 및 낙후지역 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취약한 산업기반과 ▲노후 주거시설, 교통시설, 상하수시설, 의료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여건 ▲미흡한 지역개발여건 ▲다한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와 자연환경보전규제 등 3개 군(郡)의 낙후원인을 조목조목 규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김규선 연천군수와 안덕수 강화군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소성규 대전대학교 교수, 이종현 우리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강화, 옹진, 연천 3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하는 등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북한과 인접한 안보 요충지란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역차별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제5회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田中祥司(Shoji TANAKA) 기타큐슈경제연구소 대표 등 관련연구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지원·이권형 연구위원이 인천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영원한 청년 시인 기형도

도시경연연구부 김종업 초빙연구원

영원한 청년 시인 기형도

유쾌한 성격에 사람을 좋아하여 주변 자인들과 아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시인 기형도(1960~1989).



작품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발랄한 청년이었던 그는 문단에 나타나 단 한 권의 시집도 자기 손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그의 시는 검고 딱딱한 이미지, 절망, 상실 등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으나, 정작 현실 속에서의 기형도는 쾌활한 성격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던 그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 종로의 한 영화관에서 음울하게 세상과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시가 잊혀진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는 시인도 드물 것이다.

기형도 시인은 1960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공무원인 부친의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79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문학동아리 연세문화회에 입회한 것을 계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1년 안양의 문학동인 '수리'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시작에 몰두하였다. 그 후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 문화부, 편집부 기자로 일하며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1980년 대학문학상 박영준 문학상에 '영하의 바람'으로 가작에 입선하였고, 1982년 대학문학상 윤동주문학상(시부문)에 '식목제'로 당선되었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안개'가 당선되어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으로 '입 속의 검은 잎'이 유고시집으로 1989년에 발간되었다. 이후 1990년에는 소설, 편지, 단상 등이 수록된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1999년에는 '입 속의 검은 잎' 이후 발견된 미발표 시 16편과 그 주변 사람들의 글을 담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가 출간되었다. 1999년에는 전집으로 '기형도 전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문학평론가 김현은 그의 작품 세계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일컬었다. '그의 시가 그로테스크한 것은, 타인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져, 갇힌 개별자의 비극적 모습이 마치 무덤 속의 시체처럼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데에 있다. 시인은 그의 모든 꿈이 망가져 있음을 깨닫는다. 그의 시는 낯설고 우울하며, 어두운 이미지, 고독과 죽음에 직접 연결된 이미지들이 혼하게 쓰인다. 하지만 먼 곳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의 시는 현실의 세계를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시적인 것이란 없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주의자이다.'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이 된 '입 속의 검은 잎'에는 유년 가족사, 성장기는 물론이고, 20대 청년의 내면 풍경, 세상과 부딪치면서 일어나는 찰과상들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 2009년 사후 20주기를 맞이하는 시집에서도 문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형도 시인은 20대 젊은이들의 동반자로서 겨울안개처럼 떠돌고 있다.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이 된 '입 속의 검은 잎'에는 유년 가족사, 성장기는 물론이고, 20대 청년의 내면 풍경, 세상과 부딪치면서 일어나는 찰과상들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 2009년 사후 20주기를 맞이하는 시집에서도 문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형도 시인은 20대 젊은이들의 동반자로서 겨울안개처럼 떠돌고 있다.



유일 미발표(1987년)

시인 이문재는 생전에 기형도는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 때문에 결코 죽음을 꿈꿀만한 젊은 시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빈집' 같은 시도 이제 사랑을 잃고 빈집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잠갔다고 하지만, 그전 희망이 아니었을까 달리 보면 안에서 잠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랑을 얻는, 그래서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 사랑이 충만한 집, 이런 시를 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제시해본다.

〈빈 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도

잘 있거라, 짙었던 밤늘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훗날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간했네

- 기형도 시집, '일 속의 검은 잎' 중에서 -

시인 기형도는 1989년 새벽 뇌졸중으로 인하여 종로의 한 극장에서 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5살부터 고인이 될 때까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살았으며, 현재 경기도 안성시 천주교 공원묘자에 묻혀 있다. 묘비에는 세례명 "그레고리오"가 새겨져 있다. 기형도의 무덤은 문학을 동경하고 시를 꿈꾸는 이들에게 일종의 성지다.

시인의 요절과 죽음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시집은 이후 기형도 신화를 빚어내어,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여 삶에 의지를 솟아오르고, 청년의 열정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든다.

기형도(1989), 일 속의 검은 잎(기형도 시집), 문학과학사.

서울신문(2009), 기형도, 그를 잊지 못합니다... 내맘속 떠도는 겨울안개처럼 20주기 산문집 발간... 추모행사 잇따라, 2009.03.06.
일자 위키백과, 기형도 중앙일보(2009), "[week&캐스트리] 추모여행,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소풍', 2009년 6월 4일 권혁재
기자 작성, KBS 1TV 낭독의 발견 "영원한 청년, 詩人 기형도"를 읽다! - 詩人 기형도 20주기를 보내며, 2009.03.13, 일 병영분

유쾌한 성격에 사람을 좋아하여 주변 지인들과 아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시인 기형도(1960~1989). 작품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발랄한 청년이었던 그는 문단에 나타나 단 한 권의 시집도 자기 손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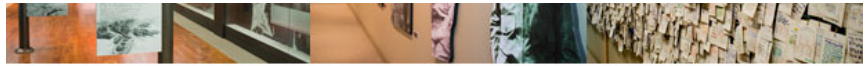
글 조승현 / 도시경관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석조수 / 도시개발연구부 연구위원

California St.를 아시나요? 경기도 양주시 한북정맥 흥복산 한 봉우리. 옥어진 풀숲을 헤치고 역삼각형 '지뢰(MINE)' 경고를 무시하며 200여 미터 산길을 오르면 오래 전에 폐쇄된 미군부대가 나옵니다. 무기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건은 애트한 사연들입니다. 지하벙커 벽에 새겨진 Smith, Jane, miss you, 노스텔지어. 424, 이건 고향에 돌아갈 날수를 써 놓은 것이 아닐까. 세계 최대빈국이던 코리아. 거기서도 시골 구석의 산속 시멘트 지하벙커에서 총을 들고 밤을 지새우던 아메리칸 병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캘리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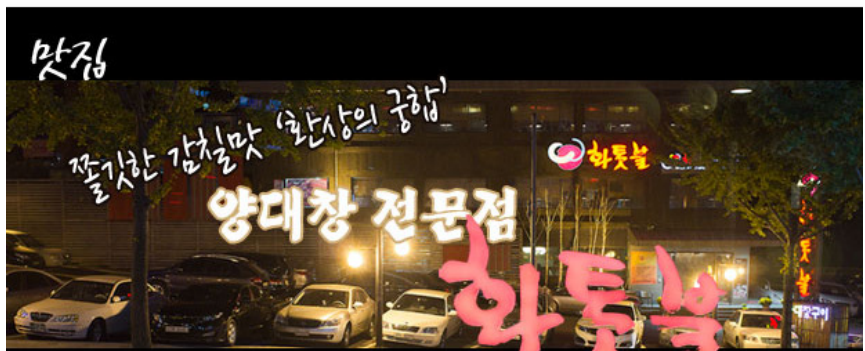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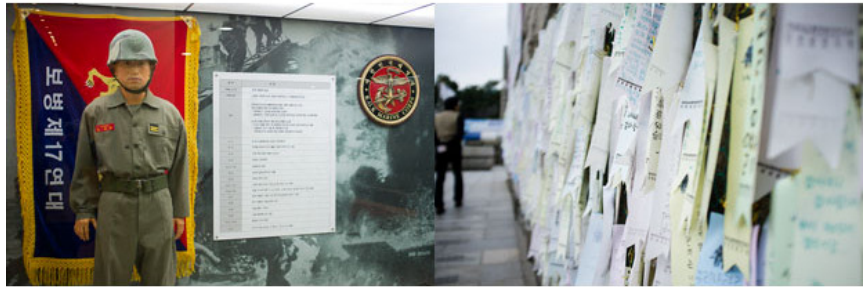
당시 어린 소년을 먹여 살린 건, 아마도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은, 미군 부대에서 음식찌꺼기를 끝인 꿀꿀이죽과 자육한 먼지내며 신작로를 달리던 쓰리쿼터(3/4톤 미군용 트럭)에서 던져주던 씨레이션(C-ration: 미군 전투식량)이었겠지요. 소년과 아메리카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초등학교 건물에 박혀있던 PL480(미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식량 및 경제 원조법) 동판에 새겨진 악수하는 두 손. 태어난 자리는 지금 미군부대 골프장이고, 군대 생활은 미군들과 같이 했으며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얻었죠. 제가 미군과 엮어진 정도가 대한민국 평균 보다 약간 많지 않을까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와의 드라마틱한 조우. 인천상륙작전은 형식과 내용 모두 두 나라를 하나로 잡아매어두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의 전투병력이 포함된 국제연합작전이었죠. 청량산 자락 시립박물관을 옆에 두고 있는 기념관은 1984년 세워졌습니다. 전시관에는 상륙작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전계획서, 상륙돌격부대 유물들이 있습니다. 참전 16개국을 기념하는 조형물도 볼 수 있지요. 인천상륙작전 디오라마, 영상실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면, 작전당시 사용되었던 장갑차, 전쟁에 사용되었던 각종 무기들이 곳곳에 있지요. 전시관 맞은편에는 250여석의 영상실에서 상륙작전 관련 영상물도 보고, 매주 일요일 2시에는 건전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청량산을 뒤로 하고 앉아있노라면 인천대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60여 년 전 벌어졌던 생과 사를 가르던 집단적 대격전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상전벽해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에 밝히는 것들. '당신들의 희생이 우리들의 웃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참전용사에게 드리는 감사의 리본 글들이 벽마다 빼곡합니다. 우리네 삶은 관계와 욕망이라고 했지요. 한미FTA로 당분간 시끄러울 듯합니다. 한국과 미국사이의 역사적 인연과 신세짐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반대편이 크게 한 번 붙을 기세입니다. 기념관을 가로지르는 계단 가에는 노란 가을국화가 저녁 햇살을 받아 따뜻함과 평안함이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청량산 길을 내려오면서 생각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더 이상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장 그르니에.



맛집

정갈한 감칠맛 '한상'의 궁합

양대창 전문점

화투불

인천에서 양, 대창 좀 한다는 곳, 송도 '화투불'은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에 띄고, 경복궁 맞은편에 자리해 찾기도 쉽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화투불이 주는 훈훈한 느낌처럼 구워먹는 음식이 생각날 때 썩 괜찮은 메뉴 중 하나로 양대창 숯불구이를 꼽을 수 있다. 양대창은 한우에 버금가는 가격(특양 25,000원/한우대창 23,000원)이라 결코 착한 음식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날, 한번쯤 먹어주면 좋을, 깊은 풍미가 있고, 스테미너에도 좋으며 감칠맛도 그만인 메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발강게 달아오른 참숯 고운 질화로를 올려둘 넓적한 디딤돌과 밀번찬이 준비된다. 보통은 곱창이나 대창집의 경우 밀번찬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화투불'은 새콤하고 개운한 물김치, 신선한 샐러드와 피클 등 정갈하고 깔끔한 밀번찬들이 나오고, 찬이 비면 서버가 알아서 그때 그때 채워준다.

양대창은 주문하면 서비스로 마배기 정도의 연통이 함께 나오는데 양대창보다 빨리오는 부드러운 연통부터

양과 대창을 두툼이 얹어 찜하고 갖가지 양파의 곱창이 곱창에 익혀 양과 대창으로 갈라 먹는 두툼이 곱창이 먹으면서 양대창을 기다리면 된다. 양대창은 구운 정도에 따라 맛의 질을 좌우하는지라 '화투불'에선 종업원이 직접 현란한 손놀림으로 가장 맛있는 정도의 곱창이 되었을 때 손님 앞으로 친절히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해준다. 종업원 아주머니가 대창을 굽는 중에 '대창은 곱창의 형이라 곱창에 비할 맛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대창의 맛은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을 입증해주는 중독성 있는 맛이다.

양과 대창은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져서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없다. 적당히 익힌 양 한 점을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장에 청양고추를 더 넣어 짭짤하게 먹어보니 부드럽고 사각이는 식감과 술향이 배인 구수한 맛이 전해진다



대창은 윤기 찰찰 흐르고, 대창꽃을 피운 자태를 뽐낼 때 먹으면 되는데, 양념된 특제소스일법한 달콤한 맛과 쫄깃쫄깃한 감칠맛이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게 한다. 특히 대창의 기름은 몸에 쌓이지 않는 기름이라 살도 찌지 않고,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하니 여성들에게도 환영받을 메뉴다. 석쇠에는 통마늘이 함께 올려지는데, 느끼해질만할 때 밤맛 나는 구운 마늘 한 개를 곁들이면 더 오래,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격이 착하지 않음에도 양이 적다는 것과 술을 술술 불러서 지나친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양대창을 양껏 먹으려면 주머니가 두둑해야 가능할 듯 싶다. 가난한 주머니를 책망치 않으려, 많이 먹으면 느끼해서 못먹는다 자위하며 서둘러 잡곡 누룽지와 도토리 묵사발을 주문했다. 직접 만든 누룽지라 그런지 더 구수하고, 된장찌개도 칼칼하니 맛있다. 묵밥도 새콤하고 시원해서 느끼함을 잡아준다. 그밖의 메뉴에는 질 좋은 한우등심과 더덕육회, 생고기 등이 있다.



양의 풍부한 식감과 대창의 고소하고 쫄깃한 감칠맛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더해주는 양대창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다. '화투불'은 가볍게 한 끼 해결할 가격은 아니지만, 다양한 와인도 준비되어 있어 손님접대나 가족행사 등 조금은 고급스러운 모임 때 찾으면 손색없고, 만족스러운 식당이다.



글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California St.를 아시나요? 경기도 양주시 한북정맥 흥복산 한 봉우리. 옥어진 풀숲을 헤치고 역삼각형 '지뢰(MINE)' 경고를 무시하며 200여 미터 산길을 오르면 오래전에 폐쇄된 미군부대가 나옵니다. 무기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건은 애뜻한 사연들입니다. 지하방커 벽에 새겨진 Smith, Jane, miss you, 노스텔지어. 424, 이젠 고향에 돌아갈 날수를 써 놓은 것이 아닐까.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도시_오키나와 나하시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석중수



오키나와 전체의 약 25%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주둔 미군기지의 약 70%에 해당된다. 가데라 군비행장과 후텐마 군비행장은 각각 시가지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서 소음누계와 비행기 사고문제가 최근들어 일본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된 곳이다. 2차대전 때는 일본이 본토방위를 위한 시간 벌기(버린 등)작전을 위해 주민들을 연루시킨 비참한 지상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 20만명이 이곳에서 희생되었으며, 노인과 어린이, 여성들이 희생자의 절반을 넘었다. 같은 일본군에 의한 주민 학살, 스파이로 몰리거나 쫓겨나 총격을 받거나 집단살을 강요 당한 희생자들이다. 오키나와 전쟁 중 1평방미터에 1발씩 폭탄이 투하될 정도로 '철의 폭풍'이 몰아친 곳이기도 하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이며, 한국 전쟁을 비롯한 베트남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분쟁지역 전투에서 미국의 배후기지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섬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가 나하시다. 나시는 오키나와섬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류큐[琉球] 왕국의 수도 슈리[首里]의 외항이었다가 1879년 류큐왕국이 오키나와현에 속하면서 정치의 중심지가 슈리에서 나하로 옮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시기지가 파괴되어 전후에 재건하였는데, 이때 시가지 중심부가 옛 나하시의 서쪽 교외로 옮겨지면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백화점, 영화관, 신문사, 방송국, 등이 들어섰다. 일본

남쪽의 광분 구실을 하는 나하국제공항이 있으며, 3만급의 선박 입항이 가능한 나하항은 상항과 미군 전용의 군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옛 왕성이었던 슈리성은 1992년 류큐 왕릉과 함께 복원되었으며, 부근에 시키나엔[識名園] 벤자이텐도[弁財天堂] 등 많은 문화계가 있다.

면적은 일본의 도도부현청 소재지 가운데 신주쿠구를 제외하고 가장 작고 인구밀도는 수도권과 긴키 지방을 제외하면 일본에서 가장 높다(1제곱킬로미터당 8,040명). 특히 나하 공항이 도시 면적의 8%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항 면적에는 항공 자위대의 정유지도 포함된다. 주일 미군의 시설이나 나하 항의 항만 시설까지 포함하면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면적은 훨씬 좁아진다. 게다가 나하 공항의 고도 제한 때문에 시가지 상당수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나하 시 외곽으로 주거지역이 넓어지면서 나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의 인구는 약 75만이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하고 인구 감소가 보편적인 일본의 지방 도시들 중에서 나하 시는 예외로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도시다. 나하 시의 중심부는 고쿠바 강과 아사토 강에 둘러싸인 평지이며, 나하시와 오키나와현의 주요 시설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다. 근래에는 미군의 마키미나토(牧港) 주택지구가 반환됨에 따라 나하 신도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나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관광면에서 시의 중심부에 국제 거리(國際通り)가 있고 도시 동쪽의 슈리 저구의 슈리 성(首里城, 류큐 왕국의 왕궁) 등이 있으며 2004년 12월에 일본에서 유일한 공항 외 면세점인 DFS 갤러리아 오키나와가 개점하였다. 나하는 성에 입지하고 있지만 해수욕장은 나미노우에 비치가 유일하다. 명산품으로 소주의 일종인 아와모리(泡盛)가 있다.



◀ 나하시 전경



슈리성 정전 ▶



◀ 슈리성 성벽



나하시 모노레일 ▶



◀ 헤이와토오리

오키나와의 매력은 겨울에도 따뜻하며 풍경이 좋고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라는 것에 있다. 우리에게 오키나와는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하며, 오키나와를 소개하는 대다수의 책자들도 관광지 오키나와의 매력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

도시경영연구부 강승호 연구위원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안보이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인천은 서해 불안을 극복하고 서해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평화도시를 지향구축해야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음.

○ 평화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평화개념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따라서 안보와 평화 개념의 관련성,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 평화운동, 해외 평화도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시정책 및 정책 목표로서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화도시를 추구 혹은 추진하기 위한 구상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인천시 평화도시 추진 방향 및 과제 추진 거버넌스

○ 인천이 추구할 평화도시 추진 방향 및 과제 추진 거버넌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표 1> 인천의 평화도시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요소	인천현황	추진방향	거버넌스
역사	전적지	반전평화 상징	갈등 방지, 시경부와 시민 공동 컨센서스 중요
도시발전단계	성숙한 국제도시	다문화/인권	시정부 담당부서, 시민(주류), 이주민커뮤니티
		안전/환경	시정부 담당부서
지리	남북접경	대북 인도적 지원	시정부, 시민, NGO, 국제 네트워크
		점경지역개발 (교동산단)	시정부 구상재안, 국가 실행
	해양도시 (서해5도)	관광 및 국제화	지질공원 인증 등 시정부 주도
		공동어로 비무장지대화	항해 구역관리체계 구축 및 북한 참여 유도/ 국가 중상, 사·군 참여
국제협력	군사적 긴장취약	동북아안보협력체 구축	군사안보는 국가중심
	해양관리	한·일·미 해양관리	항해 해양 및 환경관리체계 구축에 시 담당부서, 민간 전문가 참여
	경제교류	동북아경제공동체	한·일·미 경제벨트에서 인천위상 제고를 위한 대 중국 산업전략 수립
	국제기구	유치에서 창설	유치위주에서 창설로. 인천시가 주도하는 항해해양 가치인식, 경제 공동체 인식 등 제고를 위한 도시간협력회의제(ICCM ¹⁾)

□ 전적지 역사성에 기초한 평화도시 추구

○ 이 경우 시민들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에 따른 시민컨센서스 도출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 이를 위한 시민운동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함.

○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은 유사한 공동 경험이 있는 지역과 비교연구를 통해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법임.

○ 인천의 평화도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대결만의 문제인식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에도 남아 있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의 패권적 질서의 극복을 시각에 넣어, 동북아 패권적 질서의 피해자인 대만의 금문도,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연계하면서도 인식을 심화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평화, 인권, 다문화 등을 제반 도시정책 목표에 반영

○ 넓은 의미의 평화, 적극적 평화개념의 안전과 환경, 인권과 다문화 등을 제반 도시정책의 목표에 반영

○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협력체계 구축과 인식을 위한 대 중국 산업전략 수립

○ 특히 인천의 경우는 국제나분와정책에 선노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 역시 시장정부와 더불어 시민의식이 중요

○ 다문화주의를 하려면 주류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장부가 나서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는 것이 필요함.

□ 남북접경의 지정경학적 위치를 활용한 남북협력 거점도시 추진

○ 개성공단의 정상화, 남북협력의 해주특구로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 인천의 교류협력 거점 장점을 국가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남북의 서해 공동어로, 수산업 공동개발 등에 있어서는 국가 서해를 대상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주민, 수산업자, 인천시가 직접 나서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임.

○ 현재와 같이 남북 공동으로 하기 곤란한 단계에서는 남측만으로 서해5도의 군사적 위협,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해 5도를 국제관광지화 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전략마련이 필요함.

□ 국제협력 분야에서 동북아 협력의 추진

○ 여전히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질서를 공동안보로 하도록 하는데 인식을 높여야 할 것임.

○ 지방정부로서 직접 상위 정치분야에는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이미 제주도의 경우 동북아 협력에 대한 제주구상 및 제주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 좋은 방법은 광역항해해역 관리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것임.

○ 요코하마의 국제평화도시 추진사례에서 보듯이 단지 국제네트워크의 일원으로만 머물지 않고, 도시차원에서 자신의 평화도시 콘텐츠를 스스로 발신하기 위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¹⁾ Inter-Cities Cooperation Meeting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안보이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서해 불안을 극복하고 서해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평화도시를 지향.구축해야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서해5도 관광현황

도시브랜드센터 김보경 전문연구원

서해5도 관광현황

도시브랜드센터 김보경 전문연구원

■ 관광자원

○ 서해5도에는 대규모 모래해안, 해식애와 같은 중요한 지형경관에서부터 생물지리학적으로 대표종인 물범, 지질적 가치가 높은 현무암 분포지, 동백나무의 북방 한계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경관이 분포

- 백령도의 전체적인 지형 윤곽은 'c'자 형으로 동단부는 소규모 만입지형의 갯벌이 있어 신라시대부터 중국과 왕래하는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나 해난시 임시피난처로 이용됨.

- 남동쪽 연안을 제외하고 해안선은 비교적 출입이 단조로운 형태로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이 발달

- 두무진¹⁾은 백령도 대표적인 해안침식지형으로 원생대 지층인 상원계 규암이 파랑과 북서계절풍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음. 암석해안에서 기반암의 일부가 바다로 돌출하거나 작은 바위섬으로 분리된 형태인 시스템, 연암부가 심한 파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식동, 해안단구 등이 잘 발달해 있음.

- 두무진²⁾에는 형제바위, 코끼리바위, 신선대, 촛대바위, 병풍바위, 등대바위 등 높이 50m 내외의 절벽이 서북단 해안인 연화3리 일대의 4km 해안선을 따라 잘 발달해 있으며, 그 경관이 매우 수려함.

- 사곶해수욕장은 용기포 선착장 남서단 진촌리 일대 해수욕장길이 2.5km, 폭 300m로 세립의 사질 내지는 규질의 실트로 구성된 조간대 지역의 대규모 해안퇴적지형이며 사곶의 사빈은 세립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인 조수의 영향으로 장기간 치밀하게 다졌기 때문에 천연비행장으로 이용될 만큼 매우 단단함.

- 공돌해안은 사곶해수욕장에서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남포리 자갈해안으로 0.4~6cm 크기의 공알 모양의 둥근 자갈로 이루어진 길이 1.5km, 폭 50m의 해변. 둥근 자갈은 백령도의 모암인 규암이 장기간에 걸쳐 파식작용으로 마모되어 작은 공과 같은 둥근 형태를 보여 공돌이라 지칭

○ 생태자원으로는 백령 점박이물범(spotted seal ; Phoca largha)³⁾은 고래를 제외한 서해안 유일의 해양포유류이며, 서해안의 깃대종백령도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최남방 서식지임.

-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은 용기포구 동북방 3km 지점의 물범바위를 중심으로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백령도 서측 두무진,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연봉바위, 갑죽도와 사탄동 해안가 등에서 출현함.

○ 웅진군의 자연환경보존지역 면적은 총 51,947㎡이며 이 중 서해5도 지역 총 면적은 48,324㎡로 93.0%의 비중을 보임, 이 중에서 대청도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42,017㎡로 가장 넓으며 웅진군 전체에서 80.9%의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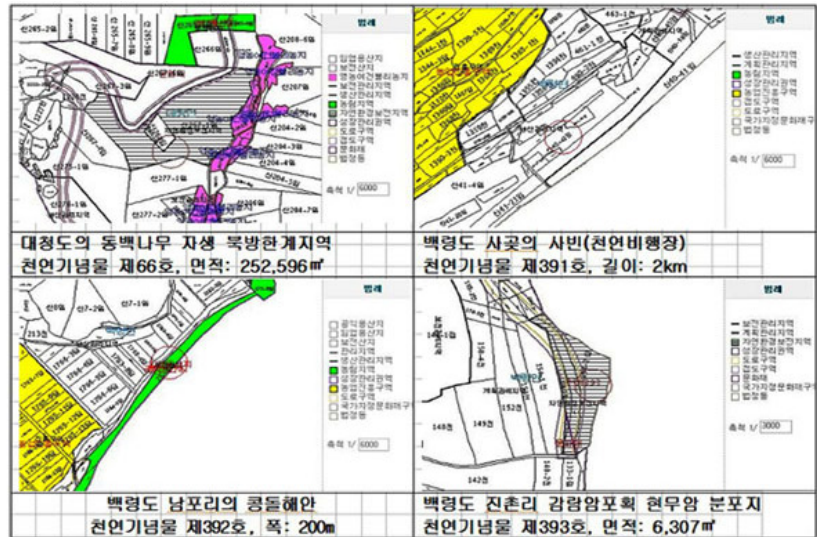
〈표 1〉 백령도-대청도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종목	명칭	규모	지정일자
천연기념물	제66호 대청도의 동백나무 지생 북방한계지역	252,596㎡	1962. 12. 3.
	제331호 물범	전국	1982. 11. 4.
	제391호 백령도 사곶의 사빈(천연비행장)	길이 2km	1997. 12. 30.
	제392호 백령도 남포리의 공돌해안	폭 200m	1997. 12. 30.
	제393호 백령도 진촌리의 감람암포화 현무암 분포지	6,307㎡	1997. 12. 30.
명승	제8호 백령도 두무진	318,544㎡	1997. 12. 30.

○ 백령도와 대청도에는 대규모 모래해안, 해식애와 같은 중요한 지형경관과 생물지리학의 대표종인 물범, 지질적 가치가 높은 현무암 분포지, 동백나무 북방한계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경관이 분포함.

○ 이 지역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6개소로 천연기념물이 5건, 명승이 1개소 있음, 이 중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된 물범의 분포지역은 전국 동해, 남해, 서해안 일원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물범의 서식지 및 번식지, 이동경로 등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해양수산부에서는 2011년까지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표 2〉 백령도-대청도의 보호구역 위치



자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 서해5도의 문화재는 명승 1개소, 천연기념물 6개, 향토유적 2개소 등의 총 9개가 소재하고 있음.
- 명승, 천연기념물, 향토유적 분포
 - 백령도 두무진 해안의 검은 모래사장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임.

〈표 3〉 백령도·대청도의 보호구역 위치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명승	백령도 두무진	백령면 연화리 255-1	1,193,544 (육지부+해양부)
천연 기념물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방한계지	대청면 대청리 산267-1외 3필지	67,140 (육지부)
	백령도 사곶해변 (천연비행장)	백령면 진촌리 산31외 11필지 인접해역부	2,566,000 (해양부)
	백령도 남포리 공돌해안	백령면 남포리 49-4외 2필지	2,805,344 (육지부+해양부)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백령면 진촌리 154-2	6,307 (육지부)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백령면 남포리 산 202-1	79,998 (육지부)
	소청도 스트라마올라이트 및 분배위	대청면 소청리 산 55-3	29,686 (육지부)
향토유적	연평도 총민사	연평면 연평리 산9-1	104
	백령도 진촌리 砲臺	백령면 진촌리 154-1	40

■ 관광현황

서해 5도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필요

- 서해5도의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제약요인의 극복 필요
 - 군사적 제약요인 : 군 작전 및 안보를 위해 토지이용, 시설물 설치, 이동 등의 제약요인 상존
 - 접근성 제약요인 : 육지와 장거리, 군사적 요인, 기상요인 등에 의해 접근성에 많은 제약이 따름
 - 인프라 및 인적자원 부족 : 관광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관광자원을 위한 인적자원 부족
-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관광객 감소
 - 2009년 서해 5도를 찾은 관광객은 총 118,423명으로 2008년 대비 24.4%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주민 소득도 2009년에는 11,603 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3.6% 증대
 - 웅진군은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도서별 관광개발을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음(웅진군, 2010).
 - 그러나 2009년 서해5도의 관광객은 웅진군 전체 관광객(3,451,759명)의 3.4%에 불과한 수준임.
- 천안함·연평도 사건 여파로 도시민을 제외한 이용객 수요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객 수요가 급감
 - 언론기관 등 방문객이 일시 증가한 인천·연평도는 2% 증가하였으나, 인천·백령도는 15% 감소함에 따라 서해 5도 향로는 12% 감소
- 서해5도 방문 관광객수는 2008~2009년 중 24.4% 증가하여 웅진군 전체 증가율 58.2%보다 낮으며, 이 중 연평면은 125.1%의 가장 높은 관광객수 증가율을 보임. 즉 두무진,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연봉바위, 갑죽도와 사탄동 해안가 등에서도 출현함.
- 웅진군의 자연환경보존지역 면적은 총 51,947㎡이며 이 중 서해5도 지역 총 면적은 48,324㎡로 93.0%의 비중을 보임, 이 중에서 대청도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42,017㎡로 가장 넓으며 웅진군 전체에서 80.9%의 비중을 차지함.

미중을 차지함.

<표 4> 관광객수 현황

구분	관광객수(명)		증감수(명)	증감율(%)
	2008년	2009년		
웅진군	2,181,453	3,451,759	1,270,360	58.2
서해5도	95,231	118,423	23,192	24.4
연평면	10,413	23,448	13,035	125.1
백령면	69,102	75,983	6,881	9.9
대정면	15,716	18,992	3,276	20.3

자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 관광사업에 따른 주민소득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3.6%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낚시업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음.

<표 5> 관광사업에 따른 웅진군 주민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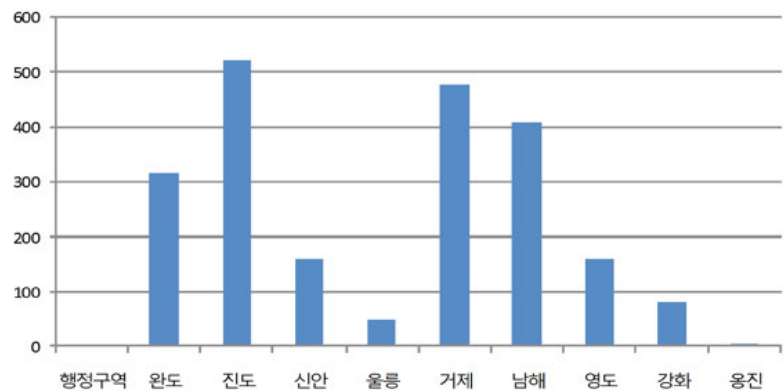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분	계	숙박업		음식점	여행업	낚시업	기타상업
		여관 및 여인숙	민박				
2008년	11,190,967	1,123,913	1,207,626	3,695,055	705,932	1,869,120	2,589,321
2009년	11,603,476	1,130,635	1,210,038	3,709,805	718,524	2,234,817	2,599,657
증가율(%)	3.6	0.6	0.2	0.4	1.7	19.5	0.4

자료: 웅진군(2010), 2010 군정백서

<표 6> 도서지역의 관광·숙박·부대시설 이용자수(2010년)

(단위: 만 명)



자료: 관광통계데이터베이스(<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주: 관광객수는 지자체에서 선정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함, 숙박시설은 특1등급, 1등급, 2등급, 등급미정, 가족호텔의 사용자수 합산한 값이며, 부대시설은 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을 의미함.

<표 7> 도서지역의 관광·숙박·부대시설 이용자수(2010년)

행정 구역	관광객수	숙박객수	부대시설이용자수
원도	3,151,066	19,487	23,106
진도	5,215,066	-	-
신안	1,589,753	-	-
울릉	479,348	5,704	4,421
거제	4,782,294	122,488	446,140
남해	4,088,923	50,746	13,627
영도	1,603,723	-	-
강화	805,299	37,828	25,419
웅진	56,949	-	-

자료: 관광통계데이터베이스(<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¹⁾ '서해의 해금강' 혹은 '금강산의 총석간'이라 지칭되는 백령도의 두무진(영승 제8호)은 "뾰족한 바위들이 많아 마치 머리털 형상과 같이 생겼다" 하여 두모진(頭毛津)이라 칭해졌음.

²⁾ 고려시대 충신 이대기는 '백령지'를 통해 '늪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극찬하였음.

³⁾ 물범의 정확한 학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나 여기서는 Won and Yoo(2004)에 따라 Phocalargha, 점박이물범으로 통일함. larcha는 빙하에 해당하는 시베리아 토착어인 통구스어를 라틴어 형식으로 표현한 것임. Common seal 또는 harbor seal로 알려져 있는 간점박이물범은 Phoca vitulina로 그 서식지가 점박이물범과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빙하나 얼음 위가 아닌 open water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